13면에서 계속

하였다. 건강부의 통판通判 양방예揚邦乂는 이에 강물에 투신하고자 했는데 부로父老가 구원하여 면하였다.

이윽고 오랑캐의 군영에 이르러서는 양방예가 굳은 듯 누워서 일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관속이 항복하기를 권하자 입을 굳게 다물고 대답을 하지 않았다. 다음날 오랑캐의 추장이 그와 친한 자를 보내 설득하니 양방예는 '내 이미 결심하였으니 원컨대 헛되이 말을 낭비하지 말라' 하였다.

다시 다음날이 되자 올출兀朮이 술상을 차려놓고 부르니 양방예가 가지 않자 강제로 이끌어 뜰아래로 데려오게 하였다. 이에 양방예가 섬돌에 이르러서는 머리로 주춧돌을 받으며 부르짖어 꾸짖기를 '내가 어찌 살아서 개나 돼지와 같이 먹어 배를 불리겠느냐' 하니 유혈이 얼굴을 덮었고 좌우가 부축하여 데리고 나갔는데 오랑캐 추장이 잡아 가두라 명했다.

이튿날에 오랑캐는 사死와 활活 두 자를 써서 보여주니 양방예는 붓을 잡아 죽을 사死자를 썼다. 오랑캐는 노하여 다시 가두게 하였다. 그런데 양방예는 이보다 앞서 손가락을 잘라 옷가슴에 혈서血書하기를 '차라리 조씨趙氏(송의 황실 성씨)의 귀신이 될지언정 다른 나라의 신하가 되지 않겠다' 하였는데 오랑캐의 추장이 처음에 이를 모르고 있었다. 또 다음날 추장이 다시 불러들여 양방예에게 물으니 항복할 수 없다고 하자 올출이 심히 노했고 양방예는 그에 맞서 크게 꾸짖는데 두건이 찢기고 옷이 찢어져 벗겨져도 속히 죽기를 기원하였다. 이때 오랑캐가 그 옷깃에 쓴 혈서를 보고는 굴복시키지 못할 것을 알고 마침내 해쳤다.

양방예揚邦乂는 송의 길주吉州 길수吉水사람으로 자는 희직希稷, 시호는 충양忠襄이며 진사에 급제하여 율양지현사 陽知縣事에 이르러 금군에 항거하다 죽었다. 제목 방예서금邦乂書襟은 양방예가 옷깃에 혈서를 썼다는 뜻이다.

두충杜充은 송의 상相사람으로 자는 공미公美이고 진사에 급제하여 상서우복야尙書右僕射、동평장사同平章事에 이르렀는데 건강建康을 수비하다가 금군이 쳐들어오자 항복하여 행대우승상行臺右丞相을 지냈는데 잔인하고 살륙을 좋아하였다. 올출兀朮은 금나라 태조의 넷째아들 완안종필完顏宗弼의 본명이고 다른 이름이 알철斡 、알출斡出、황알출晃斡出이기도 하며 시호는 충렬忠烈이다. 송의 악비岳飛와 대치하다가 진회秦檜가 악비를 살해한 뒤 송과 강화하였으며 벼슬은 태사도원수太師都元帥에 이르렀다.

그 찬시는 다음과 같다.

금병대지건강위金兵大至建康危 : 금나라군사 크게 이르러 건강이 위태로우니

두둔진항세부지杜遁陳降勢不支 : 두충은 숨고 진방광은 항복하니 형세가 지탱을 못하는데

유유양공종불굴唯有楊公終不屈 : 오직 양공이 있어 끝내 굽히지 않아

외연장절시남아巍然壯節是男兒 : 높다랗게 굳센 절개가 바로 남아였다네

자혈서금의자진刺血書襟意自眞 : 피를 갈라 옷깃에 쓴 글씨 스스로 참뜻이라

영위조귀불타신寧爲趙鬼不他臣 : 조씨의 귀신이 될지언정 남의 신하 되기 싫어

가련일사전충절可憐一死全忠節 : 가련타, 한번 죽음으로 충절을 온전히 하니

자자성전억만춘藉藉聲傳億萬春 : 자자한 소리가 억만년을 전하네

179. 악비날배岳飛涅背

처음에 송宋의 추밀원부사樞密院副使 악비岳飛가 강화를 의논하는 것이 계책이 아니라고 말하자 진회秦檜가 이를 미워하였다. 오랑캐가 침략해 들어오자 황제는 악비에게 회서淮西를 구원하라 하니 즉일로 발행하여 나갔다. 장준張俊이 글을 보내 군량이 떨어졌음을 말해도 악비는 그치지 않고 나아갔는데 장준이 조정에 돌아와서는 도리어 악비가 머무적거리고 나가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또 악비가 산양山陽은 지킬 수가 없다고 하여 군사의 사기를 저상시켰다고 하면서 진회秦檜와 모의하여 간의대부諫議大夫 만사설萬俟卨로 하여금 악비를 탄핵하여 그 병권兵權을 파하게 하였다.

진회가 반드시 악비를 죽이고자 하였는데 이때에 장준과 더불어 모의하여 악비의 부장部將 왕준王俊으로 하여금 망언妄言을 하여 장헌張憲이 양양襄陽을 근거로 모의하여 악비에게 병권을 되돌리려 한다는 소리를 퍼뜨리게 하고, 왕준에게 명하여 이를 국문하여 장헌으로 하여금 거짓 자백하게 하였다. 이에 옥사가 일어나 악비와 그 아들 운雲이 대리옥大理獄에 갇히게 되었는데 진회가 작은 종이쪽에 손수 지령을 써서 옥에 보냈더니 곧 악비가 죽었다는 회보가 오고 장헌과 악운岳雲은 기시棄市(죄인을 죽여 저자에 버려두는 것)되었다.

악비는 충효忠孝가 천성에서 나왔고 사졸을 애양愛養하되 군사를 발하면 기율이 있어 적은 병력으로도 능히 많은 적을 격파하였다. 힘써 군도群盜를 평정하고 국력을 회복시킬 것을 건의하며 개연히 나라의 수치를 해설解雪할 것을 자기 임무로 삼으니 금나라 사람도 두려워하여 아버지라 부르기에까지 이르고 그 깃발을 보면 또한 감히 가까이 오지 않았다. 일찍이 그 등에 묵자로 진충보국盡忠報國넉 자를 새겼고, 고종高宗이 정충기精忠旗를 하사하여 그 가상嘉賞한 것이 특이하였는데 그가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는 천하가 원통히 여겼다.

제목 악비날배는 악비가 등에 묵자墨字를 새겼다는 뜻이다. 악비는 중국에서 삼국시대의 관우關羽 다음으로 추앙받는 군신軍神이다. 송의 탕음湯陰 사람으로 효자이자 명장이며 자는 붕거鵬擧, 시호는 무목武穆 또는 충무忠武이다. 좌씨춘추左氏春秋와 손자오자병법孫子吳子兵法에 정통하였고 이성李成、강회江淮에 대한 토벌평정과 금군金軍 격파에 큰 공을 세웠다. 벼슬은 무안군승선사武安軍承宣使、태위太尉、소보少保 등에 이르렀는데 금나라와의 화의를 주장하던 진회와 만사설萬俟卨、장준張俊 등에 의해 옥중에서 살해되었다. 효종孝宗 때 복관되어 악왕鄂王으로 추봉되고 저서 악무목집岳武穆集을 남겼다. 세인이 악왕묘岳王廟라 부르는 사당 악비묘岳飛廟가 항주杭州의 서호西湖 주변 서하령栖霞嶺 아래에 있고 하남성河南省 탕음현湯陰縣 현성 남서쪽에도 있으며 항주 서호의 악왕묘 안에 있는 그의 무덤 악분岳墳도 명소이다.

진회秦檜는 중국 역사상 대표적인 간신의 하나로 꼽히는 인물이다. 송의 강녕江寧사람으로 자는 회지會之, 시호는 충헌忠獻, 봉호는 신왕申王인데 진사進士에 급제하여 재상에 이르렀다. 고종高宗 때 충신 악비岳飛를 죽이고 주전파主戰派를 탄압하면서 금나라와 굴욕적인 화의를 맺었다. 그러나 사후에 간신으로 몰려 신왕의 봉작을 추탈당하고 시호도 충헌에서 더러운 유추謬醜로 바뀌었다. 장준張俊은 송의 성기成紀 사람으로 자는 백영伯英, 봉호는 순왕循王이다. 재기가 있는 명장으로서 금군과 싸워 여러 차례 공을 세워 추밀사樞密使가 되었다. 그러나 진회秦檜에게 붙어 악비岳飛의 옥사를 일으키고 익국후益國侯、청하군공淸河郡公、태사太師에 이르렀고 세인에게 비루하게 여김을 받았다. 악운岳雲은 악비의 양자로 송의 탕음湯陰 사람이고 좌무대부左武大夫에 이르러 악비가 죽은 뒤 만사설萬俟卨의 무함으로 처형되었고 뒤에 신원되어 안원군승선사安遠軍承宣使에 추증되었다.

그 찬시는 다음과 같다.

간흉오국욕화친奸兇誤國欲和親 : 간흉이 나라를 그르치며 화친을 하고자 하는데

서취중원유기인誓取中原有幾人 : 맹세하고 나서는 이 중원에서 몇이나 되었나

거의복수위기임擧義復讐爲己任 : 의를 들어 원수갚기 자기 일로 삼으니

악왕충효출천진岳王忠孝出天眞 : 악왕의 충효는 천성에서 나왔네

진충보국출단성盡忠報國出丹誠 : 충성을 다해 나라에 보답함 단심에서 나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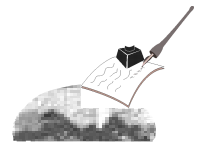
날배환응자자명涅背還應字字明 : 등에 새긴 글자에 명백히 감응하는데

애양군병엄기율愛養軍兵嚴紀律 : 군병을 아껴 기르며 기율이 삼엄케 하니

고금수득갱제명古今誰得更齊名 : 고금에 누가 더불어 이름을 나란히 하리

농동칼럼

영화 크로싱을 보고



權 海 兆
편집위원

지난 6월 한 주말에 모처럼 영화관에 갔다. 영화 '크로싱'을 보기 위해서였다. 얼마 전 신문에서, 미국에서 가진 시사회에서 절찬을 받고 많은 미국인이 눈물을 흘렸다는 기사를 읽은 때문이었다.

한마디로 북한 주민의 실상과 탈북자들의 심경을 이해할 수 있는 한편의 드라마였다. 오직 우리나라에만 있는 슬픈 진실이었다. 우리는 그동안 북한 주민의 생활을 말로만 들어왔다. 물론 영화라서 내용이 과장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말 그대로 인간 생지옥이었다.

2년 전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공연하던 뮤지컬 '요덕스토리'를 관람한 일이 있다. 북한의 요덕수용소를 배경으로 정치범 감옥의 인권참상을 고발한 내용이었다. 북한의 공훈무용수가 아버지 사진에 적힌 부모의 생일날짜를 남한과 연락하는 암호라고 하여 다잡고 간첩으로 몰아 가족과 함께 수용소로 보낸다. 수용소에서 공훈배우는 혹독한 고통을 받으며 소장의 애까지 임신하게 되고, 그 사이에 태어난 아들의 탈출을 돕다가 수용소장과 같이 죽음을 당하는데 아들은 자유 대한으로 탈출하는 내용이었다.

크로싱은 함경도 어느 탄광촌을 배경으로 주인공 용수(차인표분)가 임신한 가족의 폐결핵약을 구하기 위해 두만강을 건너 중국으로 갔다가 브로커들에 의해 한국으로 오게 되고, 떠나올 때 아들 준이(신명철분)와 한 약속을 지키고자 탈북한 아들을 만나기 위해 어렵게 몽골로 떠났으나 결국 시신으로 변한 아들을 보고 슬피우는 사연이었다.

6·25전쟁 58주년을 맞아 개봉한 영화 '크로싱'은 한국에만 있는 슬픈 진실이며 북한의 현실을 이해하기 위해서 국민 모두가 보아야 할 분단시대의 대표작으로 볼 수 있다. 아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131일간 8천km의 엇갈림의 행로로 겪는 고통이 2시간의 영상으로 요약된 감동적인 극영화였다. 정말로 흡족할만한 촬영 배경과 긴장감으로 잘 빚은 영상미를 겸비한 작품이었다.

2년 전 요덕스토리도 당시 정부의 대북정책에 맞물려 일반에의 선전이 제한되었으나, 중년층과 어린이 및 재일교포、외국인、학생단체가 많이 관람하였다. 이번 크로싱은 요덕스토리에 이어 북한의 참상을 알 수 있게 하는 또다른 소재의 발굴로 평가된다. 어린 학생부터 중고생、대학생、국민 모두가 보고 북한의 실정을 올바르게 이해해야 할 것같다.

히틀러와 스탈린의 수용소 군도에 굴하지 않은 본히퍼 목사와 사하로프 박사처럼 영화 크로싱이 북한의 인권과 자유를 위한 양심의 소리로 우리 자유와 평화를 존중하는 국민과 세계인에게 경종을 울리는 또하나의 파발마 역할을 하게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근기요산회 8월 산행 안내

안동권씨근기요산회近畿樂山會의 2008년 8월 정례산행을 아래와 같이 행하오니 모든 회원의 참여 바랍니다. 항상 가족 동반을 환영합니다.

일 시 : 2008년 8월 16일(세번째 토요일、광복절 다음날) 11시
집결장소 : 경기 동두천시 소요산역(수도권 전철 1호선 의정부방향 소요산행 종착역) 광장
등 산 로 : 자재암 방향으로 해발 536m 주봉 의상대 義湘臺까지 등반
준 비 물 : 등산복、등산화 착용 및 선택적 간식물
연 락 처 : 권병일 총무 011-289-1747
권기윤 010-7282-3608

안동권씨근기요산회장 權 寧 翼